

 겨울 축제

속리산 겨울연화(蓮花): 빛으로 피어나는 산사

"천년의 빛, 당신의 소원을 비추다"



개최 시기

2026.12.19 ~ 2027.1.3

16일간



장소

법주사 일원

팔상전, 세조길



예상 방문객

일 4,000명

총 6.4만명



핵심 가치

치유·소원

미디어아트, 힐링

3.1 기획 의도 및 컨셉

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겨울 축제 모델

전통적인 겨울 축제의 강자였던 '얼음 낚시'와 '눈꽃 축제'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. 2026년 겨울, 보은군은 **얼음이나 눈의 유무와 관계없이** 지속 가능한 **'빛'**과 **'문화유산'**을 테마로 한 축제를 제안한다.

축제 명칭 (가칭)

2026 속리산 겨울 소원 축제:
빛의 숲, 세조의 길

슬로건

"천년의 빛,
당신의 소원을 비추다."

3.2.1 킬러 콘텐츠: 법주사 팔상전 미디어아트

'미륵의 빛' - 국보 제55호에 프로젝션 매핑

❖ 프로젝션 매핑 공연

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은 국내 유일의 목탑으로서 건축적,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. 이 **40m 높이의 목탑**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프로젝션 매핑 공연을 펼친다.

* 목조 문화재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않는 최신 레이저 프로젝터 사용,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

1막

속리산의 사계

2막

미륵의 하생

3막

천년의 소원



3.2.2 체험 콘텐츠: 세조길 소원등 트레킹

'왕의 산책' - 빛의 터널을 걷다

▷ 빛의 터널 조성

겨울밤, 오리숲에서 세조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**수천 개의 전통 등(Lantern)**으로 장식하여 환상적인 빛의 터널을 조성한다.

장소: 법주사 입구 ~ 세조길 목욕소 구간



나만의 소원등 만들기

축제장 입구에서 관람객이 직접 한지로 등을 만들고 소원을 적는다. 이 등을 들고 세조길을 걷는 '제등 행렬' 진행.



세조의 힐링 로드

세조가 목욕하고 피부병을 고쳤다는 '목욕소' 지점에서 LED 연꽃 조명을 물에 띄우는 의식. 액운을 씻어내고 새해 복 기원.



침묵의 트레킹

특정 시간대에는 대화를 금지하고 오직 빛과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'목언 트레킹' 프로그램. 명상과 치유의 경험 제공.

3.2.3 식음 콘텐츠: 보은 원터 푸드존

'따뜻한 대추의 위로' - 대추 특산물 활용 겨울 간식

☕ 특별 메뉴

대추 라떼 & 대추차

보은 대추를 진하게 우려낸 차와 대추 크림 라떼

대추 찐빵 & 호떡

팥 대신 대추 앙금을 넣은 따뜻한 간식

도깨비 팥죽

동지 시즌 '액운 타파' 메뉴, 대규모 나눔 행사

대추 막걸리

보은 특산 대추로 만든 전통 막걸리

투명 돔 텐트 (이글루형)

관람객들이 추위를 피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투명 돔 텐트 설치. 내부를 감성적인 캠핑 소품으로 꾸며 [인스타그래머블 포토존](#)으로 활용.

3.3 차별화 전략 및 기대 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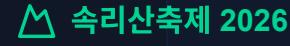
계절성 극복



체류 유도



문화재 활용



얼음이나 눈이 없어도 개최 가능한 '빛' 중심의

속리산축제 2026 축제로 기후 리스크 최소화

야간 미디어아트와 트레킹은 저녁 시간대 방문

유도 → 저녁 식사와 숙박으로 연회 배경

여름축제

법주사라는 세계적 유산을 배경으로 축제의 품

겨울축제 제고 인프라 지원 실현 가능성

마케팅

기대효과

2026 속리산축제 콘텐츠 공모전 제안서

제3장: 겨울 축제 - 속리산 겨울연화(蓮花): 빛으로 피어나는 산사